보성, 교육분야 적극 투자… 창의인재 육성

아동·청소년 올 예산 170억 편성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
에듀택시 도입 맞춤 복지 실현도

보성군이 교육 분야 적극 투자를 통해 지역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등 미래 세대 전폭 지원에 나섰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성군은 아동·청소년 분야에 17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부터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173억 원을 조성했다.

적극적인 교육 분야 투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명문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생이 2020년도 19명에서 2022년 38명, 2023년 39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률도 최근 5개년 평균 60%대였으나 올해는 77.1%를 기록했다.

보성군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진학 때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신입생 교복 구매비도 전 학년에 지원해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및 추가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 불편으로 통학이 어려운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위해 2020년에는 에듀택시 사업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조기 영재 발굴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보성군은 올해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복지에 군비 22억 원을 투입해 관내 34개교에서 20개의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지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관내 6개 고등학교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과 관내 3개의 인문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과목 학력 신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명품 교육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지역 교육 인프라도 공교육으로 강화하고 있다. 영어 체험 교실 및 외국어 체험센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영어 친화적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각각의 학교 특성에 맞게 운동, 악기, 춤, 외국어 등의 방과 후 활동을 적극 지원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계발과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

국내 역사 현장 체험학습,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보성군은 현장 중심 교육 정책 개발을 위해 학생·학부모·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보성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제1회 보성 교육 발전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재)보성군 장학재단은 미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상·하반기 총 400여 명에게 3억 9,000만 원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기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제3회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장학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꿈 드림 사업, 특별지정 장학금, 인재육성 장학금, 전문계고 특기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해 우수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 운영 중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소년들의 자립성과 자율성, 적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행정을 활성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정책을 강화해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희망찬 보성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살기 좋은 '사회안전지수' 평가
광양, 최고 A등급…전라권 1위

광양시가 '2023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전라권(전남·북, 광주) 1위로 사회안전지수 최고 A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회안전지수'는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의 정량지표에 ▲주민체감도 측정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반영해 '사회 안전도'를 측정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설문조사 표본이 적은 45개 지자체를 제외한 총 184개 시·군·구이며, 사회안전지수 순위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한다.

광양시는 사회안전지수 56.43점(전국 평균 53.4점), 사회안전등급 A등급으로 전라권 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상위 30위 시군에 해당하는 A등급은 대다수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시는 전라권 유일하게 29위로 순위권 안에 들며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주거환경'과 '경제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거환경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비문화도시' 선정, 관광·문화 기반시설 확충 ▲저출산 시대 출산 인프라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친화 일자리 사업 ▲고용 사각지대 일자리 지원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성진 기자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가 최근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 유치 추진

대한씨름협회와 협약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 김천환 군 씨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를 통해 '어머니 품 장흥'을 전국에 알리고 민속 씨름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2023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초·중·고·대·여성·남자 일반부 등 6개 부에 선수, 임원 등 총 12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돼매우 기쁘다"라며 "전국 방송을 통해 정남진 장흥을 알리고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곡성군이 최근 군청 대청마루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행사를 실시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강조

곡성군이 최근 군청 대청마루에서 이상철 군수를 비롯한 직원 100여 명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곡성군 자체 청렴도 우수부서 직원 2명이 대표로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직원 전원이 청렴 타월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지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 근절 ▲금품 향응 수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곡성군은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올 한 해는 1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렴 곡성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교육이나 캠페인을 추진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구례,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발굴
인구 유입·지역 활력 증진 추진

구례군이 인구감소 대응 방향에 맞는 적절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발굴을 지시했다.

또한, 산수유꽃축제와 벚꽃축제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강구,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주의 당부 등 빈틈없는 현안업무 수행도 주문했다.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매년 1조 원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구례군도 철저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김용문 장평면 번영회장, 목욕이용권 기탁

장흥군 장평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인흠)은 최근 김용문 번영회장이 100만원 상당의 '어르신 목욕이용권'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문 번영회장은 노인일자리 어르신과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평면사무소와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목욕이용권을 전달했다.

김용문 번영회장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신 후에 피로를 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흠 장평면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욕이용권을 기탁해 주신 김용문 번영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MG새여수새마을금고, 좀도리쌀 후원

여수시 여서동에 본점을 둔 MG새여수새마을금고가 최근 여서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좀도리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구근 MG새여수새마을금고이사장, 장명이 여서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마련한 백미 20kg, 152포를 전달했다.

기탁 받은 후원품 백미는 여서동주민센터와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52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명이 여서동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새여수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고, 기탁해준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례,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구례군이 최근 구례 5일 시장과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청정구례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합시다'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탄소중립 10대 생활 실천 운동 캠페인을 홍보하며 시장바구니를 전달하며 홍보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세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